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6호

발행인: 조민제
발행일: 2015년 7월 20일(월요일)
발행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2일이 다! 제조업 노동자 공동총파업!

연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4월,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올해 3월까지 노사정 야합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4.24 총파업까지 이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한 발 주춤했다. 그 뒤로 '성완중 리스트' 파문,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어버렸던 박근혜 정권은 구조개악을 재개할 시점만 살고 있다.

끝까지 구조개악 의지 버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몇차례 밀렸지만 정권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접을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마음에 안들던 여당 원내대표까지 쳐내자 다시 노동시장을 건드리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핵심 과제

로 강조했다.

4월에 한발짝 밀렸던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단협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지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원회, 국회를 통해서는 안될 것 같자, 사업장 임단협까지 직접 손대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공격이 몰려올 것이다. 하반기 투쟁이 또다시 불붙는다.

공동총파업으로 대응한다!

금속노조는 4월,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선봉에 섰다. 임단협까지 방해하는 정권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그런데도 정권의 개악의지는 여전하다. 이제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한 제조노동자 공동총파업으로 맞선다. 7월 22일 전국 10개 노동청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결의 대회가 열린다. 금속노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

재판부의 유성기업 봐주기는 언제까지?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멀고도 험한다.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처벌할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도 재판부의 시간끌기가 노동자들의 힘을 빼놓고 있다.

유성지회의 각종 소송이 대전고등법원에 묶여있다.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 부당징계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 연차수당 소송 등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이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임금청구소송은 계속 미뤄지면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다뤘던 사법기관은 전부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노동부, 검찰, 법원 누구하나 속 시원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질질 시간만 끌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주 봐주기가 되었다. 더는 그냥 두고보진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7.22 제조노동자 공동총파업

일시: 7월 22일(수) 15시 30분
장소: 대전노동청 앞

유성기업 재판 지연 규탄! 기자회견

일시: 7월 21일(화) 11시
장소: 대전지방법원 앞